

국정과제 반영·민생 지원… 도, 도정 현안 총력

2차 추경·폭우 대응 등 전방위 정책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 대응, 국정과제 반영, 여름철 폭우 대응,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도정 현안 브리핑을 실시했다.

전북도청은 최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천 실장은 먼저 이날 아침 열린 도 간부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관영 지사께서 국정기획위원회 대응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며 “아울러 내년 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병행하여 본격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구체적인 과제 선정을 앞

두고, 도정 주요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천 실장은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9대 아젠다, 74개 핵심 과제 중에서 올림픽, 새만금, 농생명, AI, 방산 등 20여 개 핵심 사업을 선별하여 국정과제 화합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26일 서울에서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찬 간담회’와 ‘도민주권전북 현장상황실’ 출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 자리를 통해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 된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 2차 추경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총 규모는 30.5조 원이며, 이 중 소비 진작, 고용 안정, 민생 회복 등에 총 20조 원이 반영됐다.

전북자치도 역시 이 예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천 실장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포함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 회복 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분담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도는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빠르고 정확한 예산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천 실장은 “현재 여러 시도에서 국비 비율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전북도는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또 최근 장마철 폭우에 따른 재난안전 대응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사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셨다”며 “각 부서에서는 기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전했다.

천 실장은 끝으로 “정기 인사 이후 각 부서의 조직 안정과 직원 휴가 배려도 강조되었다”며 “7~8월 직원들이 충분히 재충전하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시군별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고창 웰파크 호텔에서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개최 추진, △2026년 도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전략, △도정 주요 정책 발표, △시군 우수 사례 공유, △전북사랑 도민제 및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협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농업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 지속 감소”

손종열 남원시의원, 시정질문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23일 제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남원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질문자로 나선 손종열 의원(사진)은 시민들이 제기한 현안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최 시장의 시정철학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도농 복합도시인 남원에서 농업·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 △이백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내권 이전에 관한 입장과 계획 △삼상원보호를 위한 공익적 규제조치에 대해 제약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정책과 향후 행정적 지원 계획과 방안 △남원시 주요 도로의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최경식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질문에 대한 현황설명과 함께 “농업예산의 증액 편성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포용적인 복지 환경 조성 노력, 도시 미관 개선과 도로 기능성 향상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의 답변을 통해 시장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의회 행북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2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1개 과와 문화관광국 3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기획행정국 열린위원회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청취에서 민원인 후견인 신청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시민이 제도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영란 부위원장은 하계 올림픽 유치 시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므로, 군산시에 배정이 예상되는 종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군산시의회 제2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6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0일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박경태 의원은 교통항만수산국 교통행정과 대상 업무보고에서 주정차 단속 구간인 황해 실선이 현실적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사업 업체가 3년마다 재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변경될 시 운영센터로 변경된다며 어느 단계가 선정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점센터(차고지, 공영주차장 포함)를 마련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 대상 업무보고에서는 지해춘 위원장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처리 관련 민원 응대에 따른 민원 피로도 여부를 검토하여 인력 충원 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주문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국민주권정부 첫 시민 경청 나섰다

민주 이성운 의원, ‘이심전심’ 현장민원실 본격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지난 21일 전주시 효자동 홈플러스 일원에서 ‘이심전심(李心全心)’ 경청투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심전심 경청투어’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 재개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으로, 대선 기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던 ‘경청노트’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성운 의원이 지역 민심을 직접 듣고, 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성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정국 속에 멈춰 섰던 경청투어가 이제 다시 출발했다”며, “비 오는 날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과 애정,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주민 의견 하나하나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나라, 전주의 민생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운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시대, ‘국민과 함께, 전북·전주 시민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현장에 있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4 회계연도 결산 원안 가결

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7건·교육청 7건 시정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의원, 고창1)는 23일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4건(전북특별자치도7, 도교육청7)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5,835억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6,256억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조3,216억2,8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3,039억7,400만원이다.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계상한 예산 미편성을 지양하고, 특히, 지난년도 수입 등 누락이 쉬운 세외수입 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으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되, 미달성 지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경우에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적기에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8,284억7,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8,313억8,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6,174억6,0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139억2,0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변경 시, 사업 담당자의 철저한 예산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추경 반영 사업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 방지를 강조했다. 예비비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실시하여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에서는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검토, 지표 실효성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인지예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기존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도와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26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이만호 기자

“연구기관 유치·청년 일자리로 고창에 활력”

사업가 출신 박수열씨, 내년 지방선거 고창군수 출마 선언



사업가 출신 박수열(67)씨가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9기 민선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가 출신 박수열(67)씨가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9기 민선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열씨는 “고창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등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고창”이라며 “군민과 소통하며 고창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창읍성(모양성) 내 소나무 숲 등을 정비하고 역사성을 살린 복원

작업을 추진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고창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특히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고창군청에 군수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별 민원창구를 설치해 군민 누구나 행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여성들이 안정적

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투자기관과 연구시설을 고창에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고창이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중간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만큼, 각종 연구기관 분원 유치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전처럼 고창에도 연구기관이 들어서면 석·박사급 인력이 유입되고,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며, 농생명이나 생태 관련 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마 배경에 대해 박씨는 “사업을 하며 전국 공공기관과 협력한 사업 경험 있고, 고창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인 고창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고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수열씨는 고창 부인인 윤양리 출신으로, 전주대학교 졸업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만학도이기도 하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을 두고 있다. 끝으로 그는 “고창을 젊고 활기찬 도시로 바꾸고 싶다. 군민과 함께 고창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변화와 창조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역시 “지금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도지사는 완주군 방문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지역 전북자치도위원들 “김 지사 완주 방문 반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과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오는 25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

해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완주군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게식 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